

# ‘생존-부도’ 갈림길에 선 금호타이어

### 지난해 매출 2.4% ↓ 1569억원 손실... 워크아웃 이후 최대 자구안 합의 시한 2주...차입금 연장 안되면 부도 가능성도

금호타이어가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차입금 연장을 위한 노사 합의 최종 기한(26일)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최근 워크아웃 이후 가장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공시되면서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1569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 적자로 돌아섰다고 지난 9일 공시했다. 매출액도 2조8773억원으로 전년(2조9472억원)에 견줘 2.4% 감소했고 당기순손실도 886억원으로 전년(379억원)보다 늘어났다.

최근 3년간 당기 순손실(379억~886억)

을 기록한데다, 영업이익마저 적자로 전환되면서 회사 경쟁력 확보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작년 4분기 통상임금 및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판결에 따라 900억원가량이 총당금으로 반영되면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줄었다”는 게 금호타이어측 설명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하락도 영업이익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금호타이어는 설명했다.

앞서 금호타이어는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132명이 정규직 지위를 확인하기 위해

낸 소송과 관련,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회사측은 소송 당사자들의 정규직 신분 전환에 따라 소송 제기 시점부터 소급 지급해야 할 인건비와 내년부터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 등을 이번엔 총당금으로 반영했다.

문제는 금호타이어의 경우 지난 2012년 4조706억원에 달했던 매출이 ▲2013년 3조6985억 ▲2014년 3조4379억 ▲2015년 3조404억 ▲2016년 2조 9472억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회사측은 이같은 점을 감안,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설비 투자, 생산성 향상, 노사관계 안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경영 정상화 방안이 요구되는 실정이지만 노조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자칫 차입금 만기(26일)로 또다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갈 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지역 경제계에서 팽배하다.

앞서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1조3000여 원의 차입금 만기 1년 연장과 이자를 인하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채권단은 1개월 내 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노사 간 약정서(MOU) 체결을 조건으로 포함했다. 만약 약정서가 체결되지 않으면 채권단이 제시한 차입금 만기 연장의 효력이 사라지며 최악의 경우 ‘부도’라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는 것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광주은행 31사단 위문금 1000만원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지난 9일 오전 제31향토보병사단(사단장 권삼)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1000만원의 위문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설 명절을 맞아 추운 날씨에도 지역 방호와 대민지원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송중욱 은행장은 “지역의 국토방위와 더불어 지역민을 위한 각종 대민지원 활동을 해주는 장병들이 있어 든든하다”며 “설 명절에도 지역민들이 안심

하고 보낼 수 있는 것은 모두 우리 장병 여러분의 덕분이다”고 말했다.

한편 제31향토보병사단은 광주시에 사령부를 두고 있는 향토 예비군 보병사단으로 지난 1955년 2월 강원도 화천에서 창설해 같은 해 4월 현재 위치로 옮겨와 광주·전남지역의 국가 주요시설 방호와 서남해안 경계 등 향토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AI 방역, 산불 진압 등 각종 대민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

## 기아차 광주공장 “재해 없는 사업장 만들겠습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지난 9일 정찬민 기아차 광주공장장 등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재해 목표달성 결의대회’를 했다.

임직원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안전 보장을 최우선으로 해서 무재해 공장 달성 목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작업장 내 잠재위험을 발굴해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앞장서자”고 다짐했다.

이들은 또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자율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점검 캠페인 활동, 원·하청 공생협력을 통해 안전수칙 준수 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로 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수백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문제로, 안전마인드를 확립해 재해 없는 광주공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



## 효성, 베트남 생산기지 발판 세계시장 공략

### 조현준 회장 베트남 총리 면담...화학·중공업으로 투자 확대

효성이 베트남을 전조기지로 삼아 세계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1일 효성에 따르면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지난 8일 베트남을 글로벌 복합 생산 기지로 삼아 세계 시장 공략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 섬유, 산업자재에 이어 화학, 중공업 투자도 진행하는 등 현지 사업을 대폭 확대해 나간다는 게 조 회장 복안이다.

조 회장은 지난 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응우옌 쉰원 폭 베트남 총리와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사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은 “효성은 베트남 북부, 중부, 남부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효성 베트남’은 글로벌 공략을 위한 전조기

지”라며 “세계 1위의 스펀텍스와 타이어 코드뿐만 아니라 화학, 중공업 부문에서도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효성은 지난해부터 베트남 남부 바리야봉따우성에 13억달러를 투자해 폴리프로필렌 공장이고 이를 위한 탈수소화공정(DH) 시설, 액화석유가스(LPG) 가스 저장탱크 건립 등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효성은 이 같은 베트남 투자 확대로 국내 생산기지의 수출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효성은 지난해 30만 규모의 증설을 완료한 울산시 용연 프로필렌 공장을 고부가가치 제품인 파이프용 PP 생산공장으로 전환하고 베트남에 신설하는 프로필렌 공장을 일반 제품 생산공장으로 이원화할 방침이



다. 이를 통해 원가 경쟁력과 수익성 확보 등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전동기도 베트남에서 반제품을 만든 뒤 국내 창원공장으로 들여와 완제품으로 제조해 수출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앞서 효성은 2007년부터 호찌민시 인근 연짜 공단에 베트남 법인을 설립한 후 지금까지 15억달러를 투자했다. 연짜 공단 내 한국 기업으로는 최대 투자 업체로 자리매김하면서 스펀텍스, 타이어코드, 스틸로드, 전동기 등 핵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조 회장은 송전과 건설 부문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베트남 인프라 사업에서도 성공을 자신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1인당 국가채무 1300만원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가 1300만원을 돌파했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 부담액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10년 만에 2.1배로 늘었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10월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1300만4754원에 달해 2008년 631만원에 비해 10년새 2.1배로 늘었다.

같은 날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671조5038억원으로 지난해 말(666조9000억원) 대비 4조6038억원 가량 늘어났다. 역시 2008년 기록했던 309조원에 비해서는 10년 새 2.2배가량 늘었다.

국가채무시계는 나랏빚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2013년부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 美 금리 상승에 주택대출 금리 급등

### 올해만 0.2%p ↑ ...한은 역전 우려 조기 금리 인상 전망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해 들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최근 미국 시장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국내 시장금리도 이에 동조화되고 있어서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12일부터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가이드금리(5년간 고정, 이후 변동금리)를 연 3.81~5.01%로 고시했다.

지난주 고시 금리(연 3.83~5.03%)와 비교하면 소폭 반락했지만, 금리 상승은 여전히 5%대다.

지난해 연말 가이드금리 연 3.61~4.81%에 비하면 0.2%포인트(p) 치솟은 셈이다. 또 NH농협은행은 연 3.65~4.99%, 신한은행은 연 3.77~4.88%, 하나은행은 연 3.664~4.864%로, 우리은행은 연 3.72~4.72%를 오는 12일부터 각각 적용한다고 밝혔다.

은행권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가이드금리는 지난해 말만 해도 최저 3% 중반 최고 4% 중반 수준을 형성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가이드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AAA등급 5년물 금리가 올해 들어서만 20bp(100bp = 1%p)가량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함께 올라가고 있다.

이처럼 금융채 금리가 오르는 것은 미국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어서다.

미국 대표 지표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해 말 2.41%였다. 그러나 지난 9일 기준 2.86%까지 상승했다. 머지않아 3%대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 채권 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예상보다 금리를 빨리 올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시장에서는 당초 미국 연준이 올해 3차례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시간당 평균 임금이 전년 동기 대비 2.9% 오르는 등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올해 4차례 금리를 올릴 것이란 전망이 퍼졌고, 이로 인해 시장금리도 오르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10	15	21	35	38	43	31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3,750,146,775				5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51,231,514				61
3	5개 숫자 일치	1,529,674				2,043
4	4개 숫자 일치	50,000				98,216
5	3개 숫자 일치	5,000				1,635,392

## 호남지역 대표주자 YHB집진기 산업현장/요식업분야 환경을 확보드립니다

**Y31Y AS24** YHB 31년의 역사와 기술이 요식업소, 산업현장 **미세먼지/오일미스트/연기**를 완벽히 제거합니다

### 미스트 크리너

하나의 바디, 네가지 기능  
미스트크리너를 새롭게 개발하다

머시닝센터, CNC 선반, 밀링가공  
방전기공 외 미스트 발생 공작 기계

### 요식업소용 전기집진기

직화구이 연기, 미스트, 미세먼지 **민원해결사**

직화구이점 미세먼지 배출주의보 발령  
대기오염 규제 대응 해결책

### 6-사이클론콜렉터

더스트크리너의 새로운 창의, 새로운 발명  
사이클론을 한 몸에 품다

그라인더작업, 금속절단가공, 드릴작업, 아크릴가공  
절삭작업, 파쇄, 석재가공 등 분진 발생하는 작업

**(주) YHB ECO / 주식회사 YHB**

www.yhbeco.com / www.yhb.co.kr  
E-mail : eco6400@hanmail.net

본사 및 영업본부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 12차 501호 Tel. 02-2029-6400 Fax. 02-2029-6404  
광주 공장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5번로 45(장덕동) Tel.062-953-2995  
익산 공장 : 전북 익산시 석암로1길 4(용재동) Tel.063-835-4771